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관련 Q&A

○ 아프간 정세 및 파르완주 치안상황은 어떠한가요?

: '09.11.19일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취임 이후 탈레반에 의한 대규모 테러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09.12.1일 미 오바마 대통령은 30,000명의 아프간 증파계획을 발표하였고 12.4일 NATO회의에서는 내년에 25개국 이상이 약 7,000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추가로 보낼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과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국들의 병력 증파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아프간 치안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PRT 파견지인 파르완 주는 아프간 34개 주 중 안전한 지역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탈레반에 적대적인 타지크족(70%)과 하자라족(10%)으로 구성되어 있어 탈레반 세력의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미 공군의 바그람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 최초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파견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PRT 임무의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인 경계지원을 위해 2년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ISAF 파병국들도 장기 파견으로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파견할 경우 파견 연장안 제출 시기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탈레반이 집중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해 온 독일의 경우 파견 연장 직전에 탈레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받았습니다.

○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는 '11년 이후까지 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군은 병력증파를 통해 아프간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11년 7월부터 전투부대를 점진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완료에는 2-4년이 소요되며, PRT 임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입니다.

파견되는 우리 군의 임무는 PRT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PRT 임무는 '12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 재건 및 복구사업의 조기 종료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가 가능' 함을 동의안에 명시하였습니다.

○ 헬기를 파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파르완주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도로가 매우 제한되고,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지상 이동은 더욱 곤란해집니다. 특히 동서로 힌두쿠시 산맥이 통과하고 있어 협로, 협곡이 많아 적의 IED 공격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IED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헬기 운용은 긴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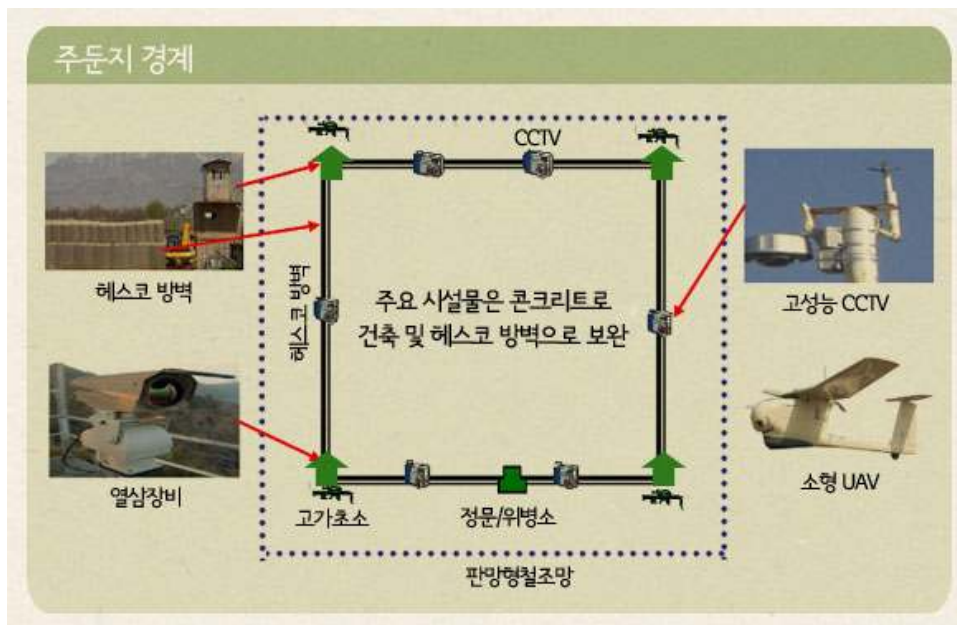
○ 부대 방호 대책은 믿을만 합니까?

: 부대 방호 대책은 인원보호, 주둔지 경계, 헬기보호로 나누어 마련하였습니다.

<그림1. 인원보호>



<그림2. 주둔지 경계>



<그림3. 주둔지 경계>



○ PRT는 아프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지방재건팀)는 주로 아프간 주정부의 행정역량 배양과 안정화 및 재건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서는 ISAF 통제 하에 31개주에서 15개국의 26개 PRT가 운용 중입니다. 아프간 파르완주에 파견되는 우리 PRT는 아프간 파르완주의 거버넌스 강화,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 훈련, 경찰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